프로골프의 계절이 돌아왔다

KLPGA·KGT 대장정 내달 티오프



2012년 KLPGA투어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존 등극을 노리는 김하늘(왼쪽)을 상대로 양수진(가운데), 정연주 등 투어 2~3년 차 신예들의 도전이 거셀 전망이다. 스포츠동아DB

"하늘이 높다해도 못오를 건 없다"…진·주의 역습

김하늘 양수진 정연주

KLPGA·KGT 2012 시즌 관전포인트

김하늘 해외투어 병행…KLPGA 2연패 체력 관건
양수진·정연주에 LPGA서 복귀 박지은 거센 도전
KGT는 홍순상 박상현 김대현 등 안갯속 레이스


홍순상


박상현


김대현

프로골프의 계절이 돌아왔다. 포문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연다. 4월12일 제주 롯데마트여자오픈(총상금 5억원)을 시작으로 2012시즌 대장정에 돌입한다.

KLPGA투어는 올해 21개 정규 투어와 하나은행챔피언십(LPGA 공동개최), 한일여자골프대항전까지 총 23개 대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상반기 대회가 크게 줄었다. 4월 2개, 5월 2개, 6월 2개로 6개 대회에 불과하다. 7월 열리는 2012런던올림픽을 앞두고 흥행 부진을 우려해 대회가 하반기에 많이 몰렸다. 상금왕을 비롯한 각종 타이틀 경쟁은 9월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고 상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화금융클래식이다. 총상금 10억원에 우승상금 2억원이 걸려있다. 20개 정규 투어에 걸려 있는 총상금은 103억 원. 하나은행챔피언십(180만 달러)과 한일여자골프대항전(6150만엔)까지 더하면 131억 원 규모다. 상금규모로 볼 때 상금왕은 지난해와 비슷한 6억 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남자부 한국프로골프투어(KGT)는 4월26일 열리는 유러피언투어와 공동 개최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개막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KGT는 이에 앞서 국내 기업이 후원하는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어 5월에는 GS칼텍스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등이 예정돼 있다.

●KLPGA 더 뜨거워진 지존 경쟁

김하늘의 독주냐, 양수진, 정연주의 반격이냐.

2012년 KLPGA 투어 최대 관심사는 지존 경쟁이다. 신지애가 떠난 이후 2년 연속 KLPGA 지존으로 등극한 선수는 아무도 없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김하늘이 2연패를 위해선 양수진, 정연주, 심현화, 김혜윤 등의 반격을 막아내야 한다. 김하늘이 지존 방어를 위해선 컨디션 조절이 최우선 과제다. 지난해 상금왕에 오른 김하늘은 올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대회에 초청자격으로 출전하게 된다. 시즌 중 해외 투어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 적응과 체력적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거 신지애, 유소연 등이 해외 투어를 병행하면서 컨디션 조절 실패로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 특히 대회의 70% 이상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 체력 관리는 올 시즌 지존 경쟁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새로운 코스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다. 넵스 마스터피스와 우리투자증권레이디스, 한국여자오픈 등이 작년과 다른 코스에서 대회를 연다. 역대 기록으로 볼 때 올해도 최소 3승에, 5억 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해야 1인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KGT 큰 대회 우승하면 상금왕 직행

한국프로골프투어(KGT)에서는 올해도 춘추전국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경태는 지난해 국내 대회 우승 없이 상금왕에 등극했다. 홍순상과 강경남이 2승씩 올렸지만 큰 대회에서 상금을 쓸어 담은 김경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도 총상금 10억원 안팎의 큰 대회 성적이 상금왕 등극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발렌타인 챔피언십과 GS칼텍스 매경오픈, SK텔레콤오픈, 하이원리조트오픈, 신한동해오픈, 한국오픈 등은 우승상금 2~3억원이 넘어 1승만 건져도 상금왕 등극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절대강자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김대현과 박상현, 이승호, 홍순상, 강경남, 이상희 등이 1인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있다. 원아시아투어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KGT투어에서 뛰게 될 김민휘의 활약도 기대된다.

●베테랑들의 활약에 관심

KLPGA 투어엔 올해 반가운 얼굴이 있다. 미 LPGA 투어에서 온 박지은(33)이다. 박지은의 가세로 자취를 감춘 30대 우승 소식이 기대된다. KLPGA 투어에서 30대 우승 기록은 2003년이 마지막이다. 김순희(당시 34세), 정일미(31세)가 김영주골프여자오픈과 하이트컵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맥이 끊겼다. 실력이나 경험으로 볼 때 박지은의 우승 가능성은 충분하다. 박지은은 2004년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미 LPGA 나비스코 챔피언십을 제패했다. LPGA 통산 6승을 올렸다.

신인왕 경쟁은 또 다른 볼거리다. 올해 KLPGA 투어에 올라온 루키는 7명.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건 김지희(18)가 신인왕 후보 1순위로 평가받고 있다.

남자부 KGT에서도 베테랑들의 활약이 관심을 끈다. 지난해 박도규(41), 최호성(39)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20대 선수들을 위협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2012년 KLPGA 투어

일정	대회명	장소	총상금
4.12~15	롯데마트 여자오픈	롯데스카이힐 제주	5억원
4.27~29	이데일리-리바트 레이디스오픈	세라지오	5억원
5.18~20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레이크사이드	5억원
5.24~27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라데나	5억원
6.8~10	롯데칸타타 여자오픈	롯데스카이힐 제주	5억원
6.15~17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엘리시안	5억원
8.10~12	히든밸리 여자오픈	히든밸리	5억원
8.16~19	넵스 마스터피스 2012	힐드로사이	6억원
8.23~26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미정	미정
8.31~9.2	LIG손해보험 클래식	일동레이크	5억원
9.6~9	한화금융클래식	골든베이	10억원
9.13~16	메트라이프 KLPGA 챔피언십	알펜시아(트룬)	7억원
9.21~23	골든에이지컵 대우증권 클래식	미정	5억원
10.5~7	러시앤캐시 채리티 클래식	오라	5억원
10.11~14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블루헤런	6억원
10.19~21	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	스카이72	180만달러
10.25~28	KB금융 STAR 챔피언십	스카이72	7억원
11.2~4	서울경제 여자오픈	미정	6억원
11.9~11	이데일리-KYJ골프 여자오픈	미정	4억원
11.16~18	ADT 캡스 챔피언십	롯데스카이힐 제주	4억원
12.1~2	한일여자골프 국가대항전	미정	6150만엔
12.14~16	현대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동방 하문(중국)	25만 달러

※상금 및 일정, 대회장소는 변동 될 수 있음

4월 해외 주요 골프대회 일정

미 PGA

날짜	대회명	총상금	전년도 우승자
4.5~8	마스터스 토너먼트	800만 달러	찰 슈워젤
4.12~15	RBC 헤리티지	570만 달러	브랜트 스네데커
4.19~22	발레로 텍사스오픈	620만 달러	브랜든 스틸
4.26~29	취리히 클래식	640만 달러	버바 왓슨

미 LPGA

날짜	대회명	총상금	전년도 우승자
3.29~4.1	나비스코 챔피언십	200만 달러	스테이시 루이스
4.18~21	롯데 챔피언십	170만 달러	첫 대회
4.26~29	모빌 배이 LPGA 클래식	125만 달러	마리아 요르트

일본남자골프(JGTO)

날짜	대회명	총상금	전년도 우승자
4.12~15	도켄 홈메이트 컵	1억3000만엔	타다히로 다카야마
4.19~22	쯔루야 오픈	1억1000만엔	토모히로 곤도
4.26~29	더 크라운	1억2000만엔	브랜든 존슨

일본여자골프(JLPGA)

날짜	대회명	총상금	전년도 우승자
4.6~8	스튜디오 앨리스 레이디스 오픈	6000만엔	취소
4.13~15	니시진 레이디스 클래식	7000만엔	후도 유리
4.20~22	후지산케이 레이디스 클래식	8000만엔	카네다 구미코
4.27~29	사이버에이전트	7000만엔	후도 유리

유러피언투어

날짜	대회명	총상금	전년도 우승자
4.12~15	메이뱅크 말레이시안 오픈	250만 달러	마테오 마나세로
4.19~22	볼보 차이나오픈	2000만 위안	니콜라스 콜사에르츠
4.26~29	발렌타인 챔피언십	220만5천유로	리 웨스트우드

편집 |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양용은 VS 클라크…메이저 챔프, 한국서 격돌

발렌타인 챔피언십 내달 26일 이천서 개막
스콧·존슨 등 세계 상위 랭커 20여명 출격

세계 골프계의 별들이 몰려온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총상금 220만유로·33억원)이 4월26~29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클럽에서 개최된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한국프로골프투어(KGT), 아시안투어, 유럽프로골프투어가 공동 주최하는 초특급 대회로, 해마다 유럽과 미국의 톱스타들을 초청해 갤러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유럽의 상위 랭커 20여명이 출전해 한국 선수들과 자웅을 겨룬다.

●세계 톱 랭커의 샷을 눈앞에서

올 해 발렌타인 챔피언십 역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한다. 2011년 디오픈 우승자인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를 비롯해 WGC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며 재기에 성공한 애덤 스콧(호주), 2011년 PGA투어 평균 드라이버 거리 314.2야드를 기록한 미국의 대표적인 장타자 더스틴 존슨(미국),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 이안 폴터(잉글랜드) 등이 출전해 한 수 위의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특히 이 대회를 통해 국내 팬들에게 처음 모습을 보이는 대런 클라크는 디 오픈 우승컵인 클라렛 저그를 한국에 가져올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메이저 챔프 양용은도 출전

메이저 챔피언 대런 클라크와 양용은의 맞대결은 가장 흥미를 끈다. 양용은은 2008년부터 빠지지 않고 이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양용은은 "한국에 처음 오는 클라크나 10년 만에 한국을 찾는 스콧에게 한국 선수들과 함께 한국 골프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며 전의를 다졌다. 발렌타인 챔피언십에서는 2008년 그레엄 맥도웰, 2009년 통차이 자이디(태국), 2010년 마커스 프레이저(호주), 2011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올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별들의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이 4월26일부터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장에서 개막한다. 작년 준우승을 차지했던 미겔 앙헬 히메네스가 갤러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티샷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